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지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제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會國際部(TEL : 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1. 1993년 대 EC 무역환경과 환경문제

1) EC집행위 조직개편

1993년도 EC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게 될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EC집행위내 인사이드인데 먼저 경쟁법 및 재정부문을 담당했던 레온브리튼경이 안드리센의 업무일부를 새로이 맡게 되었다.

안드리센이 맡고 있던 업무는 무역과 대외관계 그리고 개도국 업무 등으로 분리되어 대외관계는 Mr. Hans van den broek가, 개도국 업무는 Mr. Manuel Marin이 그리고 무역업무는 레온경이 대신진국 GATT, 반덤핑, 독립국 연합과 교역 등의 업무와 함께 각각 맡게 되었으며 이 중 개도국 업무가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레온경이 무역관련 업무를 맡게 된 것은 한국으로서는 긍정적인데 이는 그가 상당기간 자유무역주의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과의 교역 제한에서 좀더 완화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환경보호와 무역문제

1992. 11월 3일, 유럽의회(EP)는 EC의 환경정책 백서를 발간하고, 특별히 미국의 멕시코산 참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환경보호가 선진국들의 위장된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이라는 개도국들의 우려를 반증해주는 것으로서, 개도국측의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환경보호 관련 조치들의 시행에 있어서 이들의 비협조와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

상기 Case에서 멕시코가 결국 GATT 분쟁

해결 절차에서 승소한 사실은(이후 동 판정은 정치적 이유로 판결유예 되었음) 환경문제가 향후는 쌍무보다는 다자간 협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은 EC이사회에 대한 EC집행위와 의회의 보고서에 잘 견지되어 있다.

1992. 11월 4일, 집행위 보고서는 환경보호와 산업이익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신환경적 제작공정을 채택 함으로서 소비자 선택의 증대, 고도의 표준화를 채택케 됨으로서 세계시장의 접근성 증대 등의 경쟁적 이익을 지적했다. 동보고서의 “기술과 환경” 과 “청정기술 탐구”에서는, 향후 좀더 많은 자원이 제조공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R&D 부문에 투자되어 향후는 원자재와 에너지 사용을 극소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청정기술의 개발에는 정밀기계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리오 정상회담은 구체적 해답을 얻은 것은 없을 지라도 생태계 보호나 다우림, 오존층보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등과 같은 현안 환경문제를 협의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교역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환경오염 유발자 부담원칙의 수립인데 이로써 CO₂증발 생산기술에 대해 증세할 수 있게된 반면 청정기술 개발은 혜택을 보게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환경문제는 선진국의 환경보호 계획에 개도국의 참여를 도모키 위해 쌍무보다는 다자간 주의가 선호될 것이다.

3) 결 론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날로 증대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환경 규격 적용으로 인한 비용증대와 시장진입장애 등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며, 단기적으로도 이러한 관점이 어느 정도 지지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와 시장접근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긍정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며 나아가 청정기술의 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전자산업의 신규시장이 될 것이다.

2. 일·EC 가전산업협력

1) 일본과 유럽

2차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사회적 혼란과 천황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오는 문화적, 이념적 충격속에서 이룩해 낸 기술혁신과 수출신장 등의 현상은 전혀 서방측에 예측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바 서구시장은 일본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완화 되었었다.

현재의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이의 반경쟁행위는 국제간 주요 협의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관련하여 흑자는 일본의 성공이 심도 있는 경제전략과 투자 그리고 양질의 근로인력 등의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요인이 이와 같은 성공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 1) 시장 진입 장벽—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나 세금부과, 보건 및 위생관련 과잉 통제.
- 2) 폐쇄적 유통구조—“케이렛슈” 같이 한정된 집단 내에서만 상품의 유통가능 구조.
- 3) 독과점 방지제도의 미약—수송 서비스와 같은 민감분야에서도 기업간 카르텔 형성이 가능.
- 4) 기업법의 체계—기존 일본업체의 인수나 통합 불가.
- 5) 법률이나 기타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 제한.

이상과 같은 요소들은 고가 사치품 소매업과 같은 극히 한정된 영역을 제외하고는 주요역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 왔다.

일본의 대EC 무역흑자는 1990년초 약 ECU 23 BLN를 기록하고 있으며, EC 총수출의 5.5%가 일본산이며, 수입은 10.1%가 일본으로부터이다.

이후 약간의 개선기미를 보이다가 현재까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92 상반기 중 ECU 13 BLN 흑자로서 동기대비 15.3% 증가) 결과로 양측간 무역긴장이 고조되어 차차 GATT 분쟁 해결기구 의존 가능성이 높아져 왔으며, 더욱이 교역관계의 악화나 다자 협상주의로부터의 이탈 움직임 등은 분명히 일반적 세계 교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이 될 것이다.

일·EC 관계발전의 계기가 된것은 제1차 양국 정상회담(1991, 헤이그)이 끝난 이후 1992. 2. 19 도쿄에서 EC집행위 부위원장인 Sir Leon Brittan경은 연설을 통해 일본의 경제적 성공을 이끌어온 특질을 인정하는 한편 일·EC 관계개선을 위한 일본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제안을 했다.

- 1) 교역 파트너들과의 진지한 대화 증진
- 2) 일본내에서 일본의 경제적 성공의 성과를 폭넓게 공유
- 3) 최근의 쌍무적 태도의 변경과 다자간 주의 견지
- 4) 유럽경제권 내로 일본의 대외 투자를 집중하여 부품수급, 고용, 파급효과 등 현지화 증진

한국 역시 EC와의 관계를 위해 위의 제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일·EC 무역불균형 개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MITI와 EC집행위 DGI의 고위급간 1985년 이래 매6개월 주기로 회의를 갖는 “Japan Task Force”를 구성하여 환경, 기술, 투자, 교역 등 양국간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1991. 5, EC 집행위원장 Mr. Delors의 도쿄 방문에 이어 양국 정부 대표들은 그해 7월 헤이그에서 양국간 대화 및 관계증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일본수상, EC 집행위원장, EC 이사회 의장간 첫 정상회담에 이은 것으로 당시 여기서는 6개월 주기의 "Task Force" 운영 이외에 연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1992. 7. 4, 제2차 정상회담이 EC 집행위의 Mr. Delors, 이사회 의장으로 영국의 메이저 수상 그리고 일본의 미야자와 수상의 참석으로 개최되어 지난해 1차 공동 성명 사안의 이행과 최근의 국제사회 변화와 관련한 일·EC 관계강화 등을 재확인하며 무역 관련 현안사항, 상호이해증진, EC의 대일 투자증진 그리고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조속한 타결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

3) 자율규제(Unilateral Initiative)

일본의 수출 자율강화 및 승용차 수입규제 완화 1983~1985기간 중 일본정부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자동차, 경상용차, VCR, CTV, 오토바이 등 일련의 민간 품목의 수출을 제한키로 합의 했으나 그 실효성이 없어 EC는 이에대한 대안을 촉구하였다. 예로서 1992. 1, 양측간 자동차 부문의 합의를 들 수 있는데, EC 집행위는 1993부터 1999년 기간동안 로마조약에 의거, 일부 국가들 특히 스페인, 이태리에 허용하고 있는 일본산 자동차의 간접 수입규제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하는데 해당 부품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1999년 말까지 연간 120만대로의 제한과 동기간 중 시장점유율 최고 16% 이하로 유지(현지공장 생산분 포함) 하는 한편 EC시장 질서유지에 협조키로 합의 했다.

6% 추가 수출에 합의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EC산 제품 수입 촉진을 위해 정규적으로 수입되는 공산품의 반정도의 물량에 대한 5% 세제혜택과 전 수입품의 56%에

상당하는 수입에 대해 무관세 혜택, 수입확대 예산편성 그리고 해외 중소기업 보조를 위한 수입확대 융자계획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4) 산업간 협력

제1차 일·EC 공동성명에 따라 1991. 10, 양국 가전산업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유럽에서 상호 필요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며 핵심부품 수급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이후 부뤼셀에서 동 계획의 진전에 대해 양국 관련단체(EACEM/EIAJ)의 주관으로 한차례 더 회합을 가졌었다.

지난 12년동안 EC 수출업체 관리자가 최소 1년 기간으로 대일 연수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처음 6개월간은 어학연수이며 나머지 기간은 일본기업에 근무하며 기업운영 및 일본의 상관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오고 있다.

1992. 1월 16, 17일 도쿄에서 양국 정부 대표들과 회합을 갖고 산성비, 대기오난, 산림보호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상호협력 가능분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위급 연례 회담을 갖기로 합의 했다.

일·EC 공동성명 발표 직전 EC 이사회의 한 보고서에는 구소련 붕괴와 이로 인해 서구 국가들이 직면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는데 주요 내용은 경제적 변영은 세계 안정화에 기여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동구 나라들이 시장 경제체제로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고 또한 추세는 역행함이 없도록 일본의 재정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3. 결 론

전후 일본의 경제기적은 서방세계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이러한 일본의 성공을 양질의 노동력이 뒷받침된 신중하고도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덕분이다.

일본의 대EC 무역흑자는 만성적인 것으로

국제분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EC내에 요청과 일본 국내 시장에서의 대EC 교역장애 요인의 감축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탄생케 된 것이 바로 일·EC간 Task Force의 구성과 좀더 최근의 일로서, 양국간 정

상회담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이다. 이렇게 증가일로에 있는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근거해, 무역 긴장완화 및 상호관심분야 협력 등의 목적으로 양국간 협력의 기본틀이 구축되어 있다.

이런 과장이 되지 맙시다!

-자기관리를 위한 체크항목

업무수행에 대하여...

- 목표를 대한 성취욕이 낮다.() ()
- 목표를 '노력 목표'로밖에 인식하지 않는다.()
- 결과로서 언제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다.()
- 납기 지연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 말은 잘 하지만 행동력이 없다.()
- '결정적인 시기'에 승부할 수 없다.()
- 업무 개선이나 개혁에 무관심하다.()
- 스스로 사물을 기획한 일이 없다.()
- 경영 감각이 제로와 같다.()
- 자기 회사의 고객에 관한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 인맥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

부하 육성에 대하여...

- 부하육성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스스로 무슨 일이든 해치운다.()
- 부하에게 맡기지 않는다.()
- 일임하기만 하고 체크도 지도도 하지 않는다.()
- 부하에게 도전하도록 하지 않는다.()
- 부하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구체적인 실무지도를 하지 못한다.()
- 부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 기본적인 규범교육을 게을리하고 있다.()
- 부하의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 부하를 적절히 꾸짖지 못한다.()
- 젊은 사원을 엄격히 지도하지 못한다.()
- 여자사원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다.()

리더십에 대하여...

- 부하에게 회사의 방침이나 계획을 말해주지 않는다.()
- 사장의 경영이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강권으로밖에 부하를 다스리지 못한다.()
- 부하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 '근성론'만으로 부하를 이끌려고 한다.()
- 일단 유사시에 선두에 서지 않는다.()
- 무조건 책임전가만 한다.()
- 부하에게 희망없는 얘기를 한다.()
- 여러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한다.()
- '자기 출세를 위하는' 속셈이 들여다 보인다.()

자기계발에 대하여...

- 자기계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 전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다.()
- 시대감각을 흡수하지 않는다.()
- 국제감각을 조금도 몸에 붙이려고 하지 않는다.()